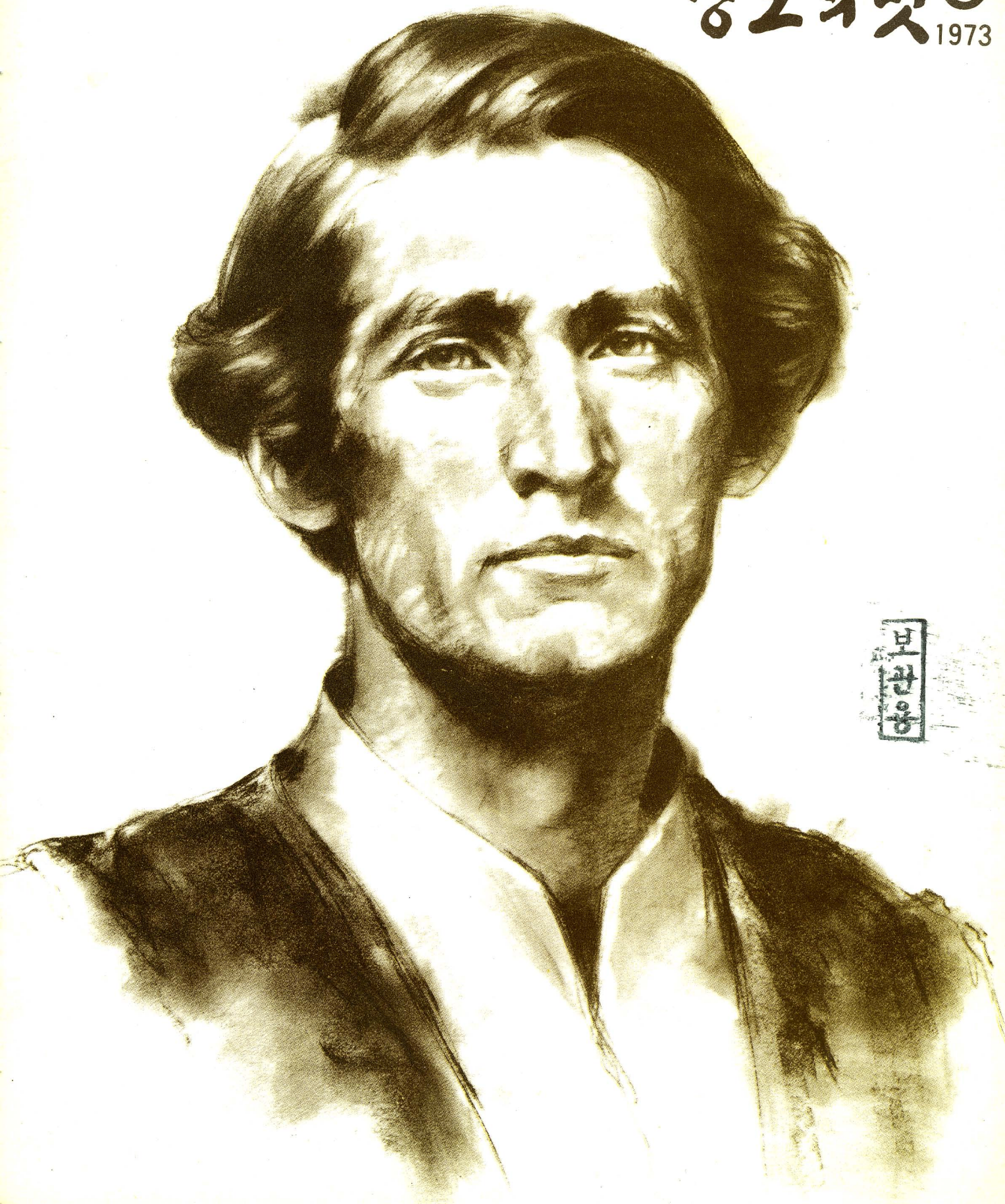



성도의 벗 9

1973




부관영



인간이 선과 악에 동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옛날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사랑하며 저를 경멸하거나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언제나 바른 길을 택할 것을 강조하면서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하려 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했읍니다. (약 1:8)

구원 대신 선을 택하고 그른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더없이 높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창조자의 대변자가 되며 이 세상에 유신으로 온 기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예언자는 이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니라” (잠 16:32)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빈 알 다이어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부조

성도의 벗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9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98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1973년 9월호

벗

제9권 제9호

고문 위원회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 대관장단
 해롤드 비 리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심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예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폴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트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클리

정 가 :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5불
 항공7불

순서

- 2 율법의 통치 매리온 지 롬니
- 4 목자의 양떼 커티스 이 레드베터
- 12 경전의 성스러운 기원 제임스 알 클라크
- 16 리 대관장님의 방문 존 에이 트베트니스
- 18 “나를 놓쳐 버릴까요” 해롤드 비 리
- 19 “라디오 관” 해롤드 비 리
- 20 질의 응답 빅터 엘 브라운
- 21 재능 발표회 비비안 바돌로뮤
- 24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 26 심심풀이
- 28 숨은 그림 찾기
- 29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권고 해롤드 비 리
- 36 신권과 대관장단 앤 엘돈 태너
- 41 또 다른 예언자를 세우셨으니 마크 이 피터슨
- 45 이야기 할 시간을 낸다 조오지 에스 듀런트
- 46 내외 소식

율법의 통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이 말씀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분야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영원한 진보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율법으로 보호 받으며 율법으로 완전케 되어 성별되나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려 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

“심판은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이를 앞서 가느니라.

“...저는 이미 만물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때와 계절에 따라 만물은 운행되느니라.

“이 운행의 계도는 일정하여 변함이 없나니, 실로 땅과 모든 유성을 품은 여러 하늘과 땅의 계도가 그리 하니라”(교성 88 : 34-35, 40, 42-43)

경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그들을 지배하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땅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르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하여 율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교성 88 : 25)

이는 땅이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한 뒤에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임이니,

“해의 영광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은 땅을 영원 무궁토록 소유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그리스도의 복음—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하여 성별되지 아니한 자도 다른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하나니...

“무릇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또 달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별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교성 88 : 19-24)

말일성도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으며 율법의 통치가 변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순종한 율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모든 성스러운 율법은 중력의 법칙처럼 변경되지 않으며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대로이며, 심판은 자비롭게 임하게 되나 율법에 따라 시행되며 공의를 잃지 않게 되리라는 모든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일성도들은 “율법의 통치”에 관한 지식을 얻은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게 될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함으로써 두배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약 1 : 25)에 비추어 볼 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어리석으며 슬픈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저 세상을 통치하는 규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지역법, 국가법 및 국제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그들이 속한 정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포한 신앙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 개조 제12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에 조화를 이루며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아래 굴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라.”(교성 58 : 21-22)

세상적인 권능의 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적인 권능은 인간의 필요에 맞도록 다소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소간 공정하고 자비로울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혁명 운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교리와 성약 주해서 [데저렛 출판사, 1954년] 339페이지)

가정이나 지역 사회나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무너질 때 혼란이 옵니다.

하늘 왕국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자유 의지로 왕국의 율법에 순종치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는 자기가 사는 나라의 법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선의와 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의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법을 불신하는 마음이 팽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이며 또한 유태 기독교인의 세속 율법의 바탕인 십계명

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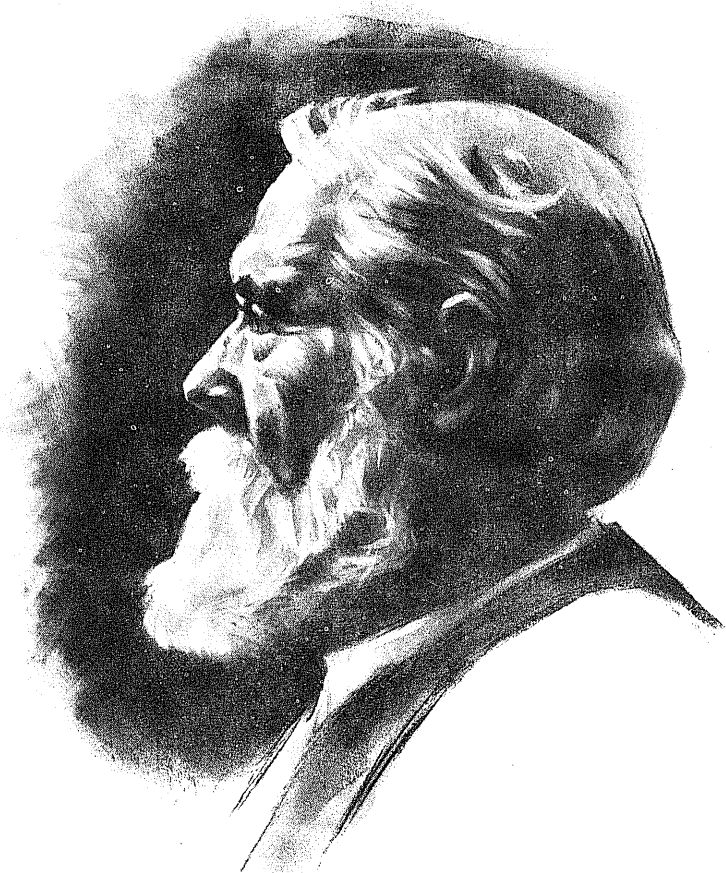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 : 3-4, 7-8, 11-1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 : 37, 39)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의 정신으로 이러한 율법을 엄격히 지키므로써 우리는 국법도 잘 지킬 수 있으며 지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해의 영광의 율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켰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안드레는 그러한 일이 있는 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갖게 되었으며 그날 이후 줄곧 예수님을 따랐다. (요 1 : 35-37)

안드레는 메시아를 찾은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하며 외쳤습니다. 그의 이 외침에는 확신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의 형제 시몬 바요나를 예수님께 데려 갈 수 있었습니다. (요 1 : 38-42)

안드레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 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주님은 그들이 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자 안드레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라고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어린 소년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고기로 무리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요 6 : 1-14)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 가셨을 때 몇몇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립은 즉시 안드레에게로 갔으며 둘은 이 이방인 방문자들을 주님께로 데려 갔습니다. (요 12 : 20-24)

안드레는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부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 가는 사명을 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의 양떼

커티스 이 레드베터

브리감 영 대학교
교회사 및 교리 담당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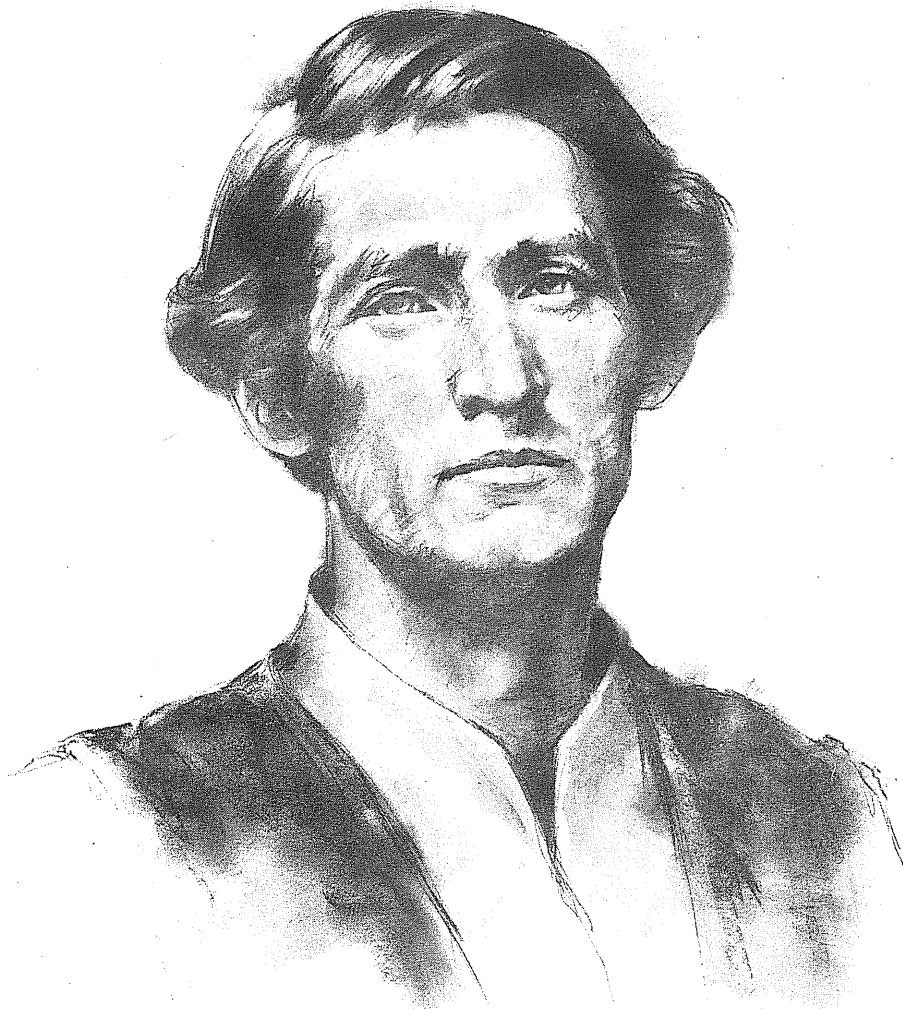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 하시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셨다. 이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진로를 새롭게 결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구세주와 살게 되었고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했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4복음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몇몇 사람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이다.

안드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얼마 후 안드레와 다른 한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여언자로 인정한 침례 요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외



사도 요한,

세베데의 아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다. (마 4 : 21)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자매였던 것 같다. (마 27 : 56 ; 요 19 : 25)

침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바로 그 제자였음이 분명하다. (요 1 : 35-40)

후에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물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 (마 4 : 21-22) 얼마 후에 요한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다. (마 1 : 20)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마 3 : 17)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을 꾸짖으며 귀신 쫓는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눅 9 : 49)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한 촌에서 거절되었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저들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였다. (눅 9 : 52-56) 언젠가는 요한이 예수께 그의 왕국에서 예수 옆의 영광의 자리에 그의 어머니와 형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한 적이 있다. (마 20 : 21 ; 막 10 : 37-40) 그들은 그때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때 그와 함께 있도록 한 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막 5 : 37-43) 구세주와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된 몸으로 신권의 열쇠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여했다. (막 9 : 2-10)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은 예수 곁에 앉았다. (요 13 : 23) 예수께서 동산에서 심한 고뇌에 싸였을 때도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다. (막 14 : 32-34)

요한을 우대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에 구세주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로 들어 갔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담대히 나타내 보였던 것이다. (요 18 : 15)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 있던 유일한 사도였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자 요한은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 들였다. (요 19 : 26-27)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처럼 그가 하는 일에는 대단한 열성을 보였으며 구세주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 20 : 23)

요한은 가르침을 잘 받아 들였으며 무엇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주님은 요한과 베드로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어 최후의 만찬 전에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변형의 능력을 통하여 요한은 희생과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영적인 통찰력과 사랑과 자비를 지닌 사람이 되었다.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 요한은 오래 살아서 많은 인간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의 청에 따라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아 있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1 : 20-24 ; 교성 7 : 1-3 ; 니삼 28 : 6-10)



니고데모

예수께서 막 성전의 청소를 마치셨다. 그날 밤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의 한 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요 3:2)

예수께서는 적절한 말씀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니고데모에게 이 가르침이 새롭고 생소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제일 원칙을 믿지 않으면 영원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

게 말씀하셨다.

그날 저녁의 열편 대화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후에 예수님이 남을 미혹케 하는 자로 고발되어 산헤드린의 모임에 섰을 때 니고데모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판결하느냐고 감연히 묻고 나섰다. (요 7:50-52) 니고데모가 이 같은 용기를 보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가 예수를 변호한다고 비난하였다.

예수가 죽은 후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몸을 장사지낼 준비를 했다. (요 19:39)

니고데모가 얼마나 용기있는 구세주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구세주의 훈계를 받아 들였다면 거듭 나야 한다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날 밤부터 영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되는 나사로와 베타니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집을 방문한 예수를 반갑게 대하곤 했다.

누가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다. (눅 10:38)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눅 10:38-42) 마르다는 예수께 식사를 지어 드리려 했으며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는데 마리아가 식사 짓는 일을 도와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부지런함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영을 소홀히 하고 육신을 먹이는 것에만 너무 열중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구세주에게로 달려 가 그의 죽음을 알렸다. “주께서 제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그녀는 예수께 말했다. 그녀는 큰 신앙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 : 25-26)

마르다는 충만한 신앙으로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옵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 : 27)

마르다와 같이 큰 간증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으며, 예수님 또한 그러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명하여 옆으로 굴러 비키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니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나왔다. (요 11 : 18-44)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구세주께 향한 사랑과 경배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원수를, 최후의 원수인 죽음과 지옥까지 다 그들의 발 아래에 굴복시켰다.



부유하고 젊은 통치자

훌륭한 성품을 많이 지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것은 열의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살아 온 것 같았다. 그는 의심 없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부유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젊은이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자 하는 봉사심이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막 10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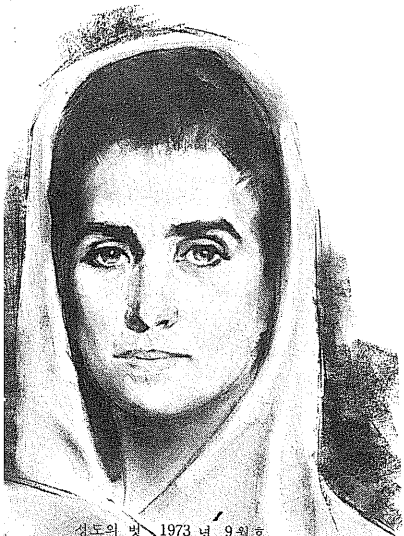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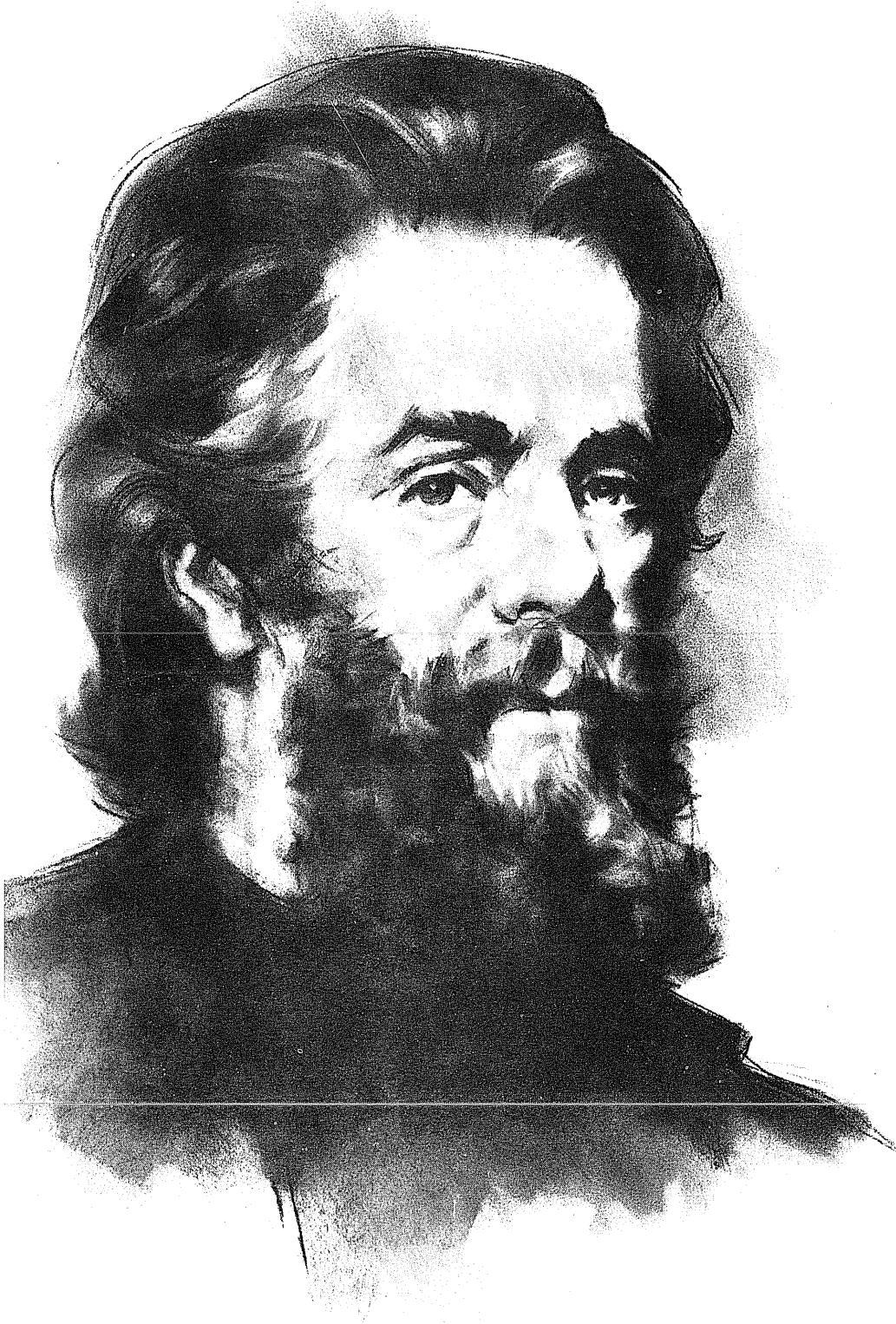
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세주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띄고 물러갔다.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재산에서 미련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두 가지 표준 사이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그는 선량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것 대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구세주께서는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영광만을 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기꺼이 버리라고 하셨다. 예수께 물으러 온 부유한 젊은이는 영생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 돌아갔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도 중요하였다. (막 10 : 17-27 ; 마 19 : 16-30)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낌없이 예수께 봉사하겠다는 결의가 부족했던 자가 무릇 얼마나 되었는가?





요한 마가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안락한 생활을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녀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의 하나였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행 12 : 12-17) 오순절에 성령에 감동된 광경이 이 집안에서 벌어진 듯하다. (행 1 : 13)

마가는 그의 가족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그곳에 흠이 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 14 : 51-52)

바울과 바나바는 성신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어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났다. 그들은 신앙과 열의로 가득찬 젊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다. (행 12 : 25) 요한 마가는 버가에서 어떤 이유로 그들과 헤어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그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행 13 : 13) 바울은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너무 강하여 두 번째의 여행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행 15 : 37-41) 바울은 그 대신 실라와 동행했으며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르로 갔다.

그후 마가가 한 일을 보면 그는 완숙한 경지에 도달한 베드로와 함께 있

었다. 그는 강건하고 헌신적이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와 마가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였으므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기까지 하였다.

“.....바벨론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벧전 5:13)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헌신적인 동반자로 그리고 훌륭한 비서로 일하였다. 그와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마가복음으로 전해 오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바울이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중에게 마가를 영접하라고 이룬 것을 보면 바울도 마가를 재인식한 것 같다. (골 4:10) 만약 이 사람이 마가이라면 바울은 마가의 이전의 행동이 바울 자신에 거역하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것 같이 보인다. 마가는 그의 봉사를 통해 자신을 증거하였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매우 감동적인 마지막 편지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딤후 4:11)라고 말했다.

바울은 독방에 감금되어 온갖 박해를 받을 때 옛날에 자기를 실망시켰으나 그 후로 성실과 충성의 본보기가 된 마가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였다.

가롯 유다

유다란 이름은 희랍어로는 Judas이며 히브리어로는 Judah이다. 그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이 이름은 변절과 불충의 동의어가 되었다.

유다는 유대의 남쪽 그리곳에서 났으며 따라서 열 두 사도 중에 갈릴리인이 아닌 사람은 그 뿐이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으며 구세주로부터 발까지 씻기움을 받은 그가 어찌하여 다락방을 떠나 주님을 중하나의 값으로 팔 수 있었을까?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가?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왕국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던가?

유다의 배반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배반은 하루 하루 단계적으로 쌓아온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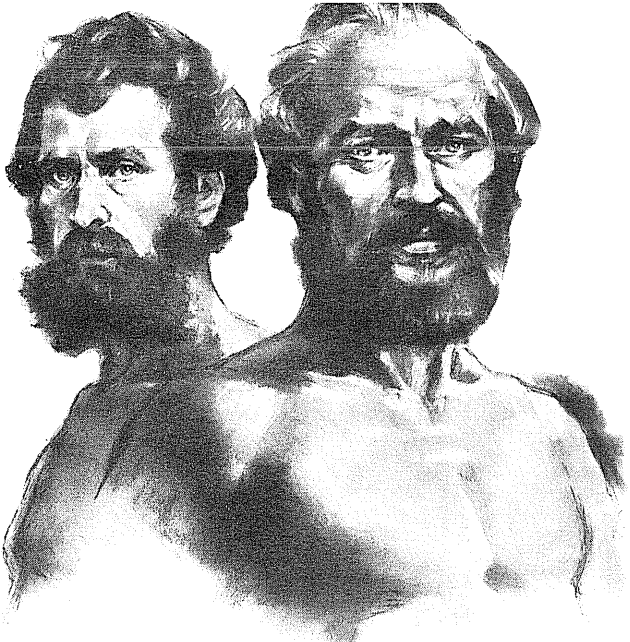
다른 사도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십이사도중에서 돈케를 맡는 자로 뽑혔는데 이는 그가 사도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들이 각기 “주여 내니이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다가 분한 마음을 먹었던 때도 알고 계셨다. (마 26:17-25)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지난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다. “.....저는 도적이란 돈 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요 12:6) 그렇



게 말한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에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가롯 유다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구세주보다 자신을 더 믿었다. 그리고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요 13:27) 유다의 영적인 빛을 거두어 버린 죄는 그의 그릇된 가치관도 아니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행위도 아니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구세주께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경전에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되어 있다. (요 13:30) 유다에게는 그후로는 모든 날이 언제나 어두운 밤이었다.



두 행악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 갈보리에는 십자가 세 개가 세워졌으며 세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은 두 죄인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것은 비교, 연구해 볼 자료가 된다.

군중과 관원은 비웃고 군병들은 제비를 뽑았으며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이같이 조롱하였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찌어다” 또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는 비방하여 말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다.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 : 34-43)

첫 번째 행악자는 하나님 왕국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말을 들어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회개와 용

서와 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입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 자신의 인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인생을 하나의 헛된 것으로 저주하였다. 그러한 사람은 회개하여 용서받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의 보잘 것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 가기를 원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더욱 피로와 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두째 형악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약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을 범했으며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고통은 자기가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 받는 것이었다.

그같은 고통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은 자기 결정을 내렸다. 한 사람의 결정은 더욱 큰 고통과 비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결정은 용서를 얻게 하고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구세주의 훌륭한 종이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녀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막 16 : 9; 눅 8 : 1-3)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 의해 위안을 얻을 필요가 있던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속에 함께 있었다. (막 15 : 40-41)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놓아 둘 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함께 있었다. (막 15 : 47)

주일의 첫 날 새벽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그녀의 슬픔을 표시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싸려고 무덤에 갔었다. (막 16 : 1) 그녀는 무덤 앞의 돌이 옮겨 간 것을 보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론지 치워졌다는 것을 알렸다. (요 20 : 1-2) 그녀는 무덤으로 급히 달려 가는 두 사도를 따라 갔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으며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울고 있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녀는 그 소리가 동산지기의 목소리인 줄 알았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라고 그에게 간하였다.


예수님이 “마리아여”라고 부르자 그녀는 그제서야 그가 예수인 줄 알았



다.

그녀는 돌이켜 “랍오니여”라고 말했다. 그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 : 14-18)

그녀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 나신 것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표준 경전
네 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그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1973년 9월호

경전의 성스러운 기원

제임스 알 클라크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교수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그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명철하신 아버지로서 그분은 인간에게 구두로 전하는 그의 권고와 충고가 쉽사리 잊혀지거나 사라져 버리며 이로써 그의 자녀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따라서 그분은 이 지상에 인간이 거하기 시작하던 태초부터 예

언자들에게 권하고 명하기를 그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널리 전파되어 자유로이 나눌 수 있게 이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대부분의 고대 기록은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가 받은 새로운 계시와 더불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표준 경전 네 권 속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표준 경전은 성경, 물문경,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의 네 권이다.

각 경전 속에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다행하게도 우리가 이들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설명해 주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의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파함에 있어서 교회 선교사는 현대까지 전수해 온 신약과 구약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하는데 이는 복음이 고대에는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나 이후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일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대 경전은 이 점을 명확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고대 경전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 영원한 진리를 떨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우리의 성경 [북크래프트사, 1954] 26페이지)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세서 1:34)인 아담과 그의 두 아들 아벨과 셋 그리고 그의 손자 에노스

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관하여 그당시 예언자인 에녹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배웠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언어가 보전되었더라.”(모세서 6:4-6)

에녹의 완전한 기록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교성 107:57 참조)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에녹의 기록과 예언에서 발췌한 것을 보면 에녹의 시대의 표준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사망이 우리 조상에게 이르렀으나 우리는 그들을 아나니 부인할 수 없도다. 참으로 우리는 최초의 선조 아담을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르침을 받은 글로 우리 가운데 기억의 책이 기록되어 왔으니, 여기에 우리의 언어가 실려 있도다 하니라.”(모세서 6:45-46)

아브라함의 생애와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경전인 창세기 12장에서 24장 사이에 실려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고대 기록을 번역하여 내어 놓은 아브라함의 전기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표준 경전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나는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창세에 이르

기까지의 연대기 서술에 힘쓰려 하노라. 이는 그 기록이 내 손에 들어 와 지금 현재까지 내가 가지고 있음이니라.”(아브라함서 1: 28)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은 기록된 경전 곧 표준 경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 경전을 요약하여 보존하고 그의 후손에게 전수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또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권의 권능에 관한 선조 곧 족장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보존하게 하셨으니,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에 그 일의 얼마큼을 기록하리라.”(아브라함서 1: 31)

현대 계시를 통해 보면 모세 시대의 기록 보관과 기록된 경전에 대한 설명이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강박함과 간악함으로 인해(교성 84: 19-27)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출 31: 18) 깨뜨린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것은 처음 것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신권을 거두어 가겠음이라 그런고로 나의 거룩한 반차와 그에 따른 의식은 그들에게서 사라지리라…”(출애굽기 34: 1)

“거룩한 신권의 영원한 성약의 말씀을 제외하고…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껍에 넣으라”(신명기 10: 2 영감역)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에 수록된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는

구약이 나오게 된 참된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누가는 신약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누가복음 1: 1-3)

요한은 성전으로 승인된 신약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거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복음 21: 24-25)

이외에도 교리와 성약에는 요한에 관한 계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요셉 스미스가 1829년에 받은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계시는 우림과 돌뭉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요한이 직접 기록하여 감춘 양피지로부터 번역한 것이다.(교성 7편 서언 참조) 이 회복된 경전으로 요한복음 21장 22-23 절에 기록된 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지니고 오실 때까지 머물게 되리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1832년 2월 “요한복음서를 번역하던 중” 요셉 스미스는 성경이 온전한 상태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

히브리어 알파벳 대문자와 고대 돌판에 기록된 비명이 아브라함서의 파피루스(두루마리) 원형 복사 그림(복사 그림 2) 위에 덧붙여 있음.



다. 그의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전에 받은 여러 계시로 미루어 보아 인간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성경 여러 곳에서 삭제되었거나 성경이 편찬되기 전에 분실되었음이 분명하다.”(교회 정사, 제1권, 245페이지)

그는 그때 자신이 본 시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영원한 세계의

man and I cannot depend one of another
 into the land saying I will according to my faith
 which I am boun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had said these words behold the birds were loosed from my hand
 and I stood before my brethren and I spoke unto them again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hung with us we again
 and sought to lay hands upon me but behold one of the
 daughters of ishmael was also had mother and one of the sons
 of ishmael did bleed with my brethren inasmuch that
 they did soften their hearts and they did cease striving to
 away my lif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were sorrowful be-
 cause of their wickedness inasmuch that they did bow down
 before me and did plead with me that I should forgive
 them of the thing that they had done again and
 it came to pass that I did frankly forgive them all
 that they had done and I did exempt them that they would
 pray unto the lord their god for forgivenes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so and after that they had done for
 my unto the lord we did again travel an our journey
 toward the tent
 came down
 and my brethren

기꾸로 된 견본은 고대의 석판
 에서 취한 것임; (대각선으로 인
 용된 문자)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
 의 판에서 복사한 문자임; 금판
 으로부터 번역된 물몬경 원문 사
 본의 일부; 아브라함서의 복사
 그림 1,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
 려는 위상을 믿는 제사의 그림이
 다.

기록을 베낀 사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교회 정사, 제1
 권, 252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
 스의 종손인 조셉 필딩 스미스 대
 관장은 이 시현을 받는데 동기가
 된 요한의 기록은 요한복음 5장
 25-29절에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
 적하였다. (교회사와 현대 계시[19
 53년] 제1권, 280페이지)

교회가 받아 세상에 선포한 현
 대 계시는 신약이 나오게 된 경위
 를 잘 설명해 준다.

교회가 경전으로 채택하여 사용
 하기 시작한 두번째 책은 물몬경
 이었다. 물몬경 서문에는 이 책의
 성스러운 기원에 관한 간결한 해
 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상
 이 책은 물몬이 쓴 기록이며 그는
 주로 "니파이 백성의 기록" 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되어 있
 다. 그리고 물몬경의 대부분은 니
 파이 백성과 야렛 백성의 기록을
 요약한 것이며 이 기록들이 "하나
 님의 은사로" 번역되었고 "이스라
 엘의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크신 업적
 을 알려 주고" "유대인과 이방인
 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
 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
 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은 되풀이해서 모든 인
 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을 표
 현하셨다. 그분은 지혜와 사랑으
 로 모든 자녀가 그의 권고를 기록
 하여 보존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다. 물몬경의 한 예언자는 하나님
 께서 온 인류에게 보이시는 사랑
 에 대해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



No folk
 bel' me
 and aft
 no you
 led that
 to the mu
 help that I
 U loose and
 eld a tree
 habby and
 the l' of
 portch of the
 Most swe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너 회 주 하나님께서 만민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나의 자녀 곧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또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말을 전함이다.

“동서 남북에 있는 자와 바다의 섬에 있는 자 모두에게 명하노니, 내가 저들에게 말하는 바를 기록하라. 나는 그 기록된 책으로 그 속에 기록된 것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저마다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겠음이다.” (니파이이서 29 : 7, 9, 11)

값진 진주에는 아담의 시대에서 요셉 스미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중요한 경륜의 시대의 회복된 경전이 수록되어 있다.

이 경전은 1851년 영국에서 최초로 십이사도회의 프랭크린 디리차즈 장로가 소책자로 출판하였다. 그는 이 경전을 출판하는 첫째 목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고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값진 진주와 같은 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와 번역과 그의 역사에서 발췌한 이 훌륭한 기록은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경전에 암시만 되어 있거나 전연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많은 중요한 사

실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문과 타이틀 페이지, 1851년판)

미국에서는 1878년 올슨 프렛이 똑같은 책 이름으로 두 번째로 이 경전의 편집을 약간 달리하였다. 그 후 이 편집 내용은 다시 검토되었고 십이사도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대관장단이 임명한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했다. 이 수정판은 대관장단과 1902년 10월에 열린 반 연차 대회의 지시로 승인되었다.

교리와 성약에는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렐 등이 경륜의 시대의 현대 예언자 세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지시가 실려 있다.

이같은 성스러운 지시에 대한 편집은 일찌기 1831년부터 시작되었다. 특정한 계시는 1832년 미주리주 인디펜덴스에서 교회 잡지인 “이브닝 엔드 모닝 스타”에 먼저 실렸다.

수집된 계시는 1833년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에서 “제명의 책”이라는 표제로 인쇄하였다. 교리와 성약 초판은 1835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 중에서 특별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계시가 수록되었다. 그 후에 잇달아 출판된 책에는 추가로 받은 계시가 포함되었다.

1831년 11월 1일 교회 장로들이 가진 특별 대회 기간 동안에 서문은 계시를 통해 주어졌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

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물론경의 히브리
어로 번역된 결본:
니파이 이서 5장부
터 시작됨.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교리와 성약 1 : 1-2, 11, 23)

이 구절에서 교리와 성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는 진실로 모든 표준 경전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표준 경전 속에서 복음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5 : 39) 39

얼

마동안 솔트레이크시로부터 전해진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으나 그 진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힝클리”장로의 서명이 있는 공식 통보가 전달되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회원들 가운데 순식간에 퍼졌다. “리 대관장님이 오신다. 예언자께서 이곳 성지를 방문하신다.”라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 의무, 종교 담당 정부 대표들과 함께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을 통틀어 30명 미만인 말일성도들과 함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님 그리고 스위스 선교부장인 에드윈 큐 캐논 형제님과 그들의 부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는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리 대관장님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몇 차례의 대회를 갖는 짧은 여행 동안 구세주의 발자취를 다시 밟아 보기 위해 오셨다. 캐논 선교부장님과 캐논 자매님은 아테네에서 일행과 합류하여 이들을 수행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스위스 선교부는 중동에 있는 지부를 관리하고 있음)

나는 이곳에 있는 구룹 지도자인 데이비드 비 갈브레이드 형제님을 비롯해서 일부 다른 회원처럼 그전에 리 대관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성격이 달랐다. 이는 그분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중으로서 오셨기 때문이다. 1841년 올슨 하이드 형제님*의 방문 이래 교회

*하이드 올슨(1805-1878) : 1835년 2월 15일 사도로 성임됨. 1841년 10월 24일 유대인의 집합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헌납함. 성도의 벗 1973년 2월호 15페이지 참조.



1973년 9월호

리 대관장님의 방문

존 에이 트베트니스

총관리 역원들이 성지 방문을 자주하였고 현임 교회 지도자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 성도와 함께 성찬식을 갖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지상 생활을 보내셨던 이 땅을 최초로 방문하셨다.

공식 환영 인사와 소개 등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틈바구니에서 나는 이날의 주인공인 그분이 보여 주신 겸손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분은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 형제입니다.”

“리 형제.”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얼마나 훌륭한 칭호인가? 그분은 교회 대관장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위치 즉 우리 모두의 진실한 형제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소개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에게는 불편한 때에라도 정중하게 부인을 도와 주시는 태도로 존경을 표시하셨다. 한 번은 식사 때 우리가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리 대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기의 음식이 식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부인을 위해 생선의 뼈를 가려 내어 주셨다.

예수님이 사신 곳과 가르치신 곳을 방문하시던 동안 리 대관장님과 핑클리 장로님은 자기들을 부르시어 봉사하게 하신 주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따금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없이 앉아 명상에 잠기기도 하셨다. 여러 번이나 리 대관장님은 성지에 물려 온 시끄러운 관광객들의 활동 속에 끼어 들려고 하신 적도 있었다.

우리는 대관장님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제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꺼이 귀 기울이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갈브레이드 형제님이 리 대관장님 부처와 핑클리 장로님 부처가 탑승하신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분들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었다. 한 번은 리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 “여보, 40분 동안이나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니 웬 일이에요?” 이 말에 대관장님은 이같이 대답하셨다. “여보, 난 지금 말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소.”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그 교훈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 피곤한 하루의 일을 마친 어느 날 저녁 리대관장님은 몸이 불편하여 주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은 핑클리 장로와 캐논 선교부장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건강을 회복하셨다. 진실로 이분이야말로 신권의 진정한 의미 곧 일요일 아침까지 숨겨 두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신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은 9월 20일 예루살렘의 “가든”에서 관리 역원 세명과 가진 모임이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이 성스러운 곳에서 이분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겠다는 큰 결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증이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필수 요건이 되므로 우리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예언자란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간증할 수 있다.

이때 소수의 성도들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지부가 조직되었고 캐논 선교부장은 회원에게 지지를 물었다. 리 대관장님은 갈브레이드 형제님을

지부장으로 성별하셨고 핑클리 장로님은 나를 제1 보좌로 성별하였다. 나는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의 안수로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때 내가 받은 축복은 가장 감명 깊은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 핑클리 장로님의 말씀과 그후 그날의 축복에 제시된 두 가지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는 교회 지도자를 인도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증거였다.

나는 부름에 대한 지지를 물을 때 형제님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고 따라서 리 대관장님이 계시는 쪽을 관찰하였다. 나는 종종 교회 대회에 참석하여 손을 들어 주님의 예언자를 지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으로 예언자께서 손을 들어 나를 지지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나에게 추억으로 남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망설일 때 내 책임을 상기시켜 줄 도저히 잊지 못할 일이었다.

주님의 택하신 대변자와 그의 친밀한 형제님들 면전에서 이처럼 귀한 시간을 얼마동안 보내면서 내가 느낀 바는 참으로 말로써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 우리가 느꼈고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방문하신 이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남아 있는 영을 통해서 다소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이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가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인류에게 보여 주시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사랑과 관심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는 도구로서 추호의 손색이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를 바란다. 圖

“아마도 그녀가 그와 같은 여성이 된 것은 그녀가 믿는 종교 때문일꺼야.”

“나를 놓쳐 버릴꺼요”

몇

년 전에 나는 한 여성 단체의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사 중에 시골의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여성들로서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막 떠나려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고 잘 생긴 젊은 군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사랑의 말이 적혀 있고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뒤에 접혀져 있는 종이 쪽지를 끄집어 냈는데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리 형제님, 저는 이 젊은 청년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품행이 단정한 훌륭한 청년이었으며 항상 저를 존중해 주고 신사다운 태도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와 데이트를 할 때에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에게 청혼을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결혼이란 일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순수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하며 우리 둘을 영원히 남



편과 아내로 결합시켜 주어야 해요.”

“처음에 그는 나와 말 다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투 지역 복무 특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약혼을 강요 하다가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안돼요, 주님의 집에서 결혼할 수 있을 때가 오기전에는 아무하고도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나보다 교회와 종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나 나를 놓쳐 버릴꺼요.”

그녀는 울다가 잠이 들었거나 울면서 밤을 새웠으리라 생각합니다. 3, 4 주일이 지나 젊은 군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기지는 태평양 군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비하는 수송집합 기지였습니다. 그는 목적지로 오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인이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

습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애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요건을 다 갖춘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녀가 그와같은 여성이 된 것은 그녀가 믿는 종교 때문일꺼야”.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러한 생각으로 자극을 받고 그곳에 있는 말일성도 젊은이들과 말일성도 군중 장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질문도 하였으며 결국 그녀의 생일에 칩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칩례 증서와 그의 사진을 동봉하여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며 그는 편지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말일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갈 작정이요. 고향에 돌아가면 장로로 성임될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여 당신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영원한 결혼을 하기 위해 당신과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오”

몇

해 전 스테이크 부장으로 재임하던 때 고등 평의회와 스테이크 부장단에 회부되어 파문을 당한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름다운 소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처를 내리기 위해 거의 밤을 새우면서 회의를 끝내고 아침에 나는 몹시 피곤하여 사무실에 가다 지난밤 재판에 회부되었던 청년의 형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부장님이 제 동생에게 죄를 씌웠지만 그가 그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동생이 무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동생이 무죄하다고 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무실에 들어 오라고 하여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져 보아도 좋겠습니까?” 그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교사인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바칩니까?”

그는 “아니오, 바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따위가 와드 감독을 하고 있는 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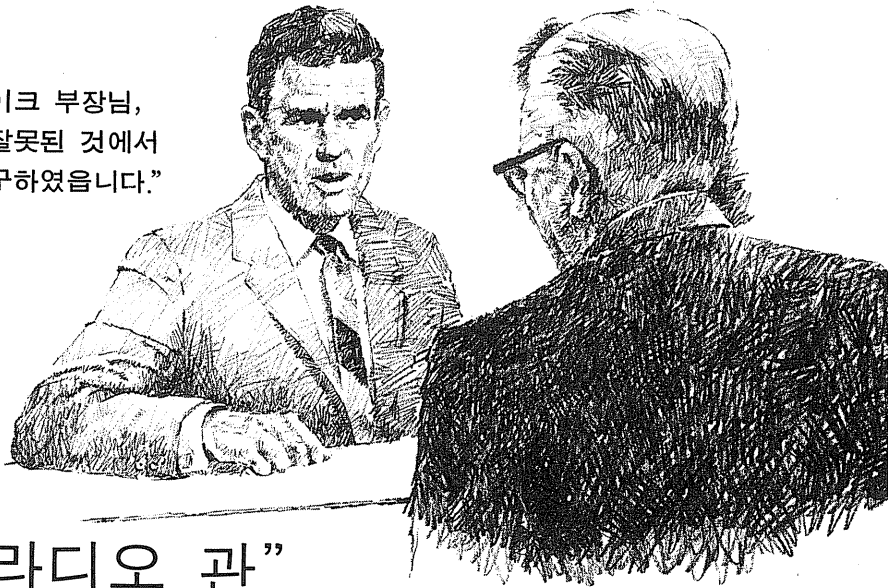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찬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가족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오.”

“스테이크 부장님,
제가 잘못된 것에서
답을 구하였습니다.”



“라디오 관”

“경전을 공부하십니까?”

그는 자기가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많이 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라고 불리는 멋진 기구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특정한 방송국에다 다이얼을 맞추면 마치 방에 가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때로는 대륙을 건너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정반대쪽으로부터 들려 오는 연사의 이야기나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너무 오래 사용하고 나면 라디오 관이라고 불리는 매우 예민한 전기 장치가 닳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닳아 못쓰게 되면 소리가 깨끗하게 나지 않게 됩니다. 계속 또 하나가 고장이 나고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는가를 들으려고 할 순간에 라디오 소리가 꺼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다른 관이 고장나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님과 나의 영혼에도 라디오의 튜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성찬식에 참석하는’ 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관, ‘십일조를 바치는’ 관, ‘가족 기도를 드리는’ 관, ‘경전을 읽는’ 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를 잘못 사용하여 고장이 나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는 라디오의 관이 고장나서 먼 곳으로부터 들려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이와 똑같은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지난 밤 스테이크 산하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활하고 있는 회원 15명이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응답의 소리를 들었으며 모두 형제님의 동생이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연 하지 않은 형제님이 기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 제가 잘못된 것에서 답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대답을 얻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마의 명령을 따른다면 악마로부터 대답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시와 인도에 필요한 응답을 얻게 됩니다. 圖

질 의 응 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교회의 책임을 받아 들이지 않아도 용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어떤 직책을 동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권능을 가진 자의 영감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가 자신이 그 지명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에만 의지한다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교회 회원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려 한다면 주님의 영의 동반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부름을 주는 신권 역원에게 우리가 주는 대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반대하는 형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 가 늦쇠 판을 가져 오라는 명을 받은 니파이가 부친 리하이에게 한 말을 상기해야 하겠

습니다.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주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나는 몇 년 전 뉴욕 시에서 이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목격했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 그곳에 갔습니다. 금식 주일에 나는 맨하탄 와드에 참석했습니다. 그 와드는 제가 처음 가 보는 곳이었습니 다. 그러나 회원들이 간증을 드리기 전에 젊은 감독이 한 간증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자기를 감독의 직책에서 해임하지 않도록 끊임 없이 기도 드렸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축복으로 자기 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감독은 니파이처럼 비록 어려운 부름일지라도 이를 받아 들여 자기의 몫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름받는 자는 모두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 곧 그의 사업과 영광을 이루시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기회나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름을 받아 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부름을 주는 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그에게 이를 설명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요소를 잘 알고 난 후 계속 우리가 봉사할 것을 원한다면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단

재능 발표회



글 : 비비안 바들로뮤

그림 : 버지니아 사전트

“엄마!” 책가방을 내려 놓으면서 루시는 숨이 넘어가듯이 외쳤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재능 발표회를 한대요. 엘렌에게 알려 주고 싶어요.”

“네가 찾아 가면 엘렌이 좋아 할게다.”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엘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스펜서 아주머니의 집을 지나면서 루시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멈췄다.

“어서 오너라.” 아주머니는 반가이 맞아 주셨다.

“제게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으세요?” 루시는 아주머니에게 물어 보았다.

“가게에서 실을 사다 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앞치마에 주머니를 달다가 실이 떨어졌어.”

“아주머니가 만드신 앞치마를 보고 싶어요.” 루시가 말했다.

스펜서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갖고 나오셨다.

“아유, 예뻐라” 얇고 우아한 모슬린천에 주름진 주머니가 달린 앞치마를 보며 루시는 감탄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재능 발표회가 열리는데 만일 어른도 참가할 수 있다면 아주머니도 이 앞치마를 갖고 나가실 수 있을 텐데요.”

“너는 그래 무슨 발표를 하겠니?” 스펜서 아주머니가 물어보셨다.

“전 재능이 없어요.” 루시가 대답했다.

“누구나 재능은 다 있는 법이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숨은 재능도 없는 걸요.”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에일린이 노래하고 매릴리가 피아노치는 것을 듣고 싶어요.”

루시가 가게로 뛰어 가는 도중에 현관에 계시는 몰튼 아저씨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루시가 인사했다.

흔들 의자에서 흔들거리시던 아저씨는 잠시 멈추시고는 루시에게 “오냐, 잘있었니?” 하시며 웃으셨다.

“보석에 광을 내셨어요?” 루시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히게 예쁜 터키석을 하나 끝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이 났다.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실을 갖다 드리고는 다시 와서 그 보석을 보겠어요.” 루시는 약속했다. “제게 심부름을 시킬 것 없어요?”





루시가 물었다. “편지 한 통을 부쳐다오.” 물론 아저씨는 말씀하셨다. “가면서 해 드리겠어요.” 루시가 자신있게 말했다.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실을 사드리고 편지를 부친 후에 루시는 새로 손질된 터키석을 보기 위하여 물론 아저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 참 예쁘다!” 루시는 감탄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일 거예요.”

물론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다. “내게 칭찬이 너무 과하구나, 루시야.”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재능 발표회가 있어요. 어른도 참가할 수 있다면 아저씨도 이 보석을 갖고 나가실 수 있을 텐데요.”

“너도 재능을 발표해야겠지.” 아저씨가 루시에게 말씀하셨다.

“전 재능이라곤 없어요.” 루시는 웃으면서 말했다.

“누구나 재능은 있는 법이야.” 아저씨가 말했다.

“숨은 재능도 없는 걸요.”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크레이그가 밧줄로 재주를 부리는 것이랑 켄이 드럼치는 것은 볼만할 거예요.”

루시는 곧 아저씨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엘렌의 집으로 급히 달렸다.

엘렌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 주셨다.

“엘렌을 만날 수 있어요?” 루시가 물었다.

“그럼, 언제든지 방문객을 환영한다.” 어머니는 미소로써 답해주셨다.

“공원에 데리고 가도 될까요?” 루시가 청했다.

“엘렌도 좋아할거야.” 엘렌의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온종일 아기가 보채는 바람에 엘렌을 밖에 데리고 나갈 시간이 없었어, 그엔방에 있단다.”

“안녕!” 루시는 침대에 누워있는 엘렌에게 인사했다. “나랑 같이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 구경하지 않을까?”

엘렌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날 데리고 가는거야?”

“그러려고 온 건데.” 루시가 대답했다. 루시는 침대 걸으로 휠체어를 옮겨 놓은 후에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침대에 앉히시는 동안 아기를 보아 주었다.

엘렌의 어머니는, “비둘기를 먹이려면 빵이 필요할거야.” 하시면서 빵 한 꾸러미를 주셨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재능 발표회를 연단다.” 엘렌의 휠체어를 열면서 루시는 이렇게 말했다.

“넌 무슨 재능을 갖고 나갈거니?” 엘렌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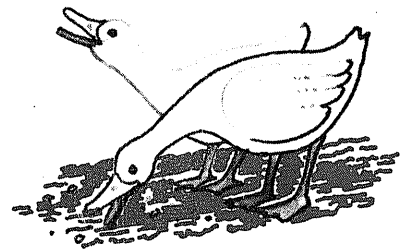
루시는 웃으면서 “내겐 재능이 없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라고 말했다.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재능은 가지고 있는 법이야.” 엘렌은 자못 사려깊게 이야기했다.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젠 시간도 없는 걸 뭐.” 루시가 이야기했다. “네가 올 수 있으면 좋겠어. 지나가 발레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또 로저는 자기가 지은 시를 낭독할거야.”

“나도 가고 싶은데” 엘렌이 말했다.

두 소녀는 비둘기에게 빵을 먹였다. 루시는 엘렌을 무사히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내일 재능 발표회가 끝난 후 만나자. 다음에는 비둘기에게 먹일 빵을 꼭 갖고 올



게.”

다음날 루시는 선생님을 도와 칠판을 닦느라고 재능 발표회에 약간 늦게 들어 갔다. 루시는 제니 앤더슨 옆 맨 마지막 줄에 빈 좌석을 발견하였다. 재능 발표회는 참 재미있었다. 로저의 시는 아주 재미있었고 매릴리의 피아노 독주는 대단히 훌륭하였다. 크레이그의 밧줄 요술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만큼이나 훌륭하였다. 제니의 무용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것을 보고 있던 루시는 나도 저렇게 했으



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켄의 드림은 온 강당을 울리는 듯했고 에일린은 너무나 노래를 잘 불러서 청중들은 앙코르를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해서 재능 발표회의 일부가 끝났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단 위에 올라오셨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멈추게 하셨다. 루시는 공예 전시회가 학교 구내 식당에서 열리며 간식도 제공된다는 광고를 하시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청중이 조용해지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랫 동안 묵과해 왔던 또 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루시 앨버트, 앞으로 나오세요.”

루시는 눈을 깜빡이였다.

옆에 앉은 제니가 옆구리를 찌르며 “빨리 나가. 너를 부르시잖아.”라고 했다.

“틀림 없이 뭔가 잘못된 거야.” 루시는 떨리는 두 다리로 강당의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루시가 교장 선생님의 옆에 다가서자 그는 말을 이었다. “우

리는 우정이라는 재능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자리를 같이한 루시의 친구들은 그녀의 우정과 협조정신이라는 훌륭한 재능을 입증하여 주었습니다.” 맨 앞줄에서 물론 아버지, 스펜서 아주머니, 그리고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의 휠체어를 밀면서 나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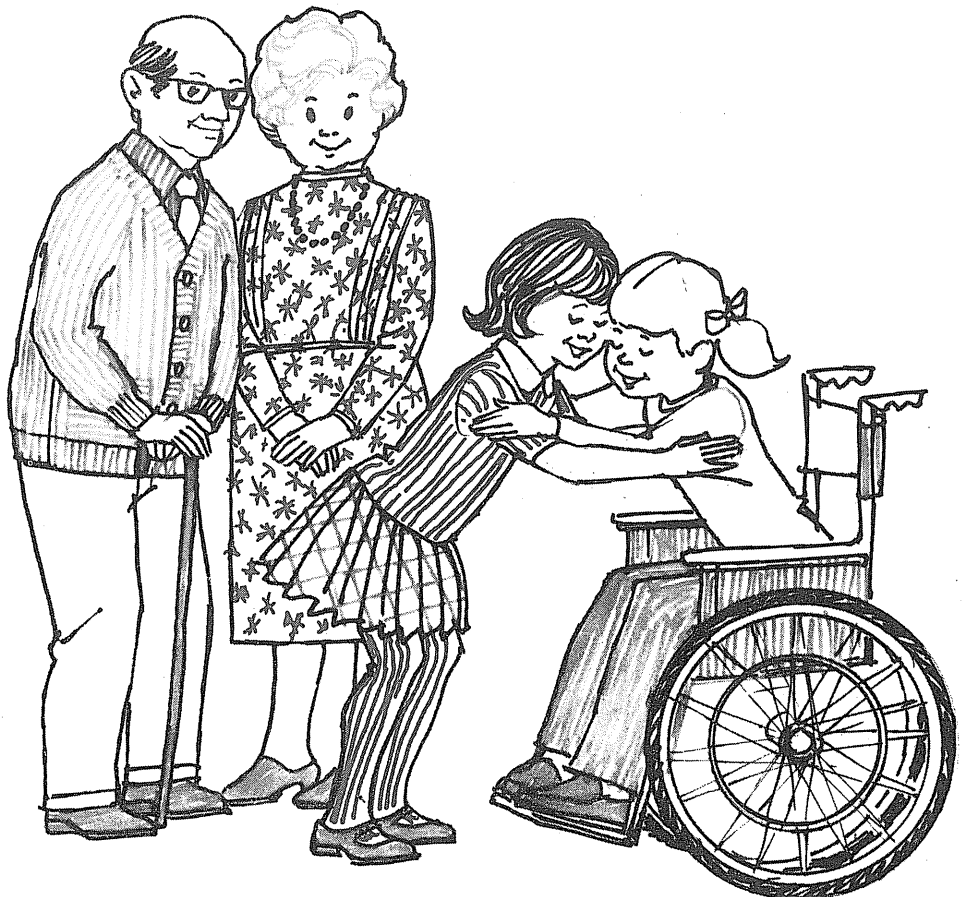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 듯 하였다. 루시의 가슴은 감사로 가득찼다. 루시는 스펜서 아주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입을 맞추

었다.

“아버씨, 고마워요.” 루시는 울튼 아버씨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루시는 얼굴에 가득히 기쁨을 담고 있는 엘렌을 안았다. “친구를 찾는 것이 재능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루시는 말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재능이야.” 엘렌이 귓속말로 소근거렸다.

“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루시는 즐겁게 미소지으면서 좋은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저의 재능을 어떠한 재능과도 바꾸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림 제리 하스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예언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왕상 17:1 참조)

이러한 그의 경고는 왕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왕상 17:4 참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까마귀는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내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는 시내 마저도 점점 물이 줄어들어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가까이 있는 도시에 찾아 가서 한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성문 앞에 오자 그는 나뭇가지를 चु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갖다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집에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며 음식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

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2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는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날을 먹었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비통해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팔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9-21절)

주님께서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 소년을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23절)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24절)

유의사항 : 25, 2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오려 낸다. 이 그림을 용판에 붙일 수 있도록 그림 뒤에 용을 붙인다. 이야기에 따라 그림을 용판에 정리한다. ■



까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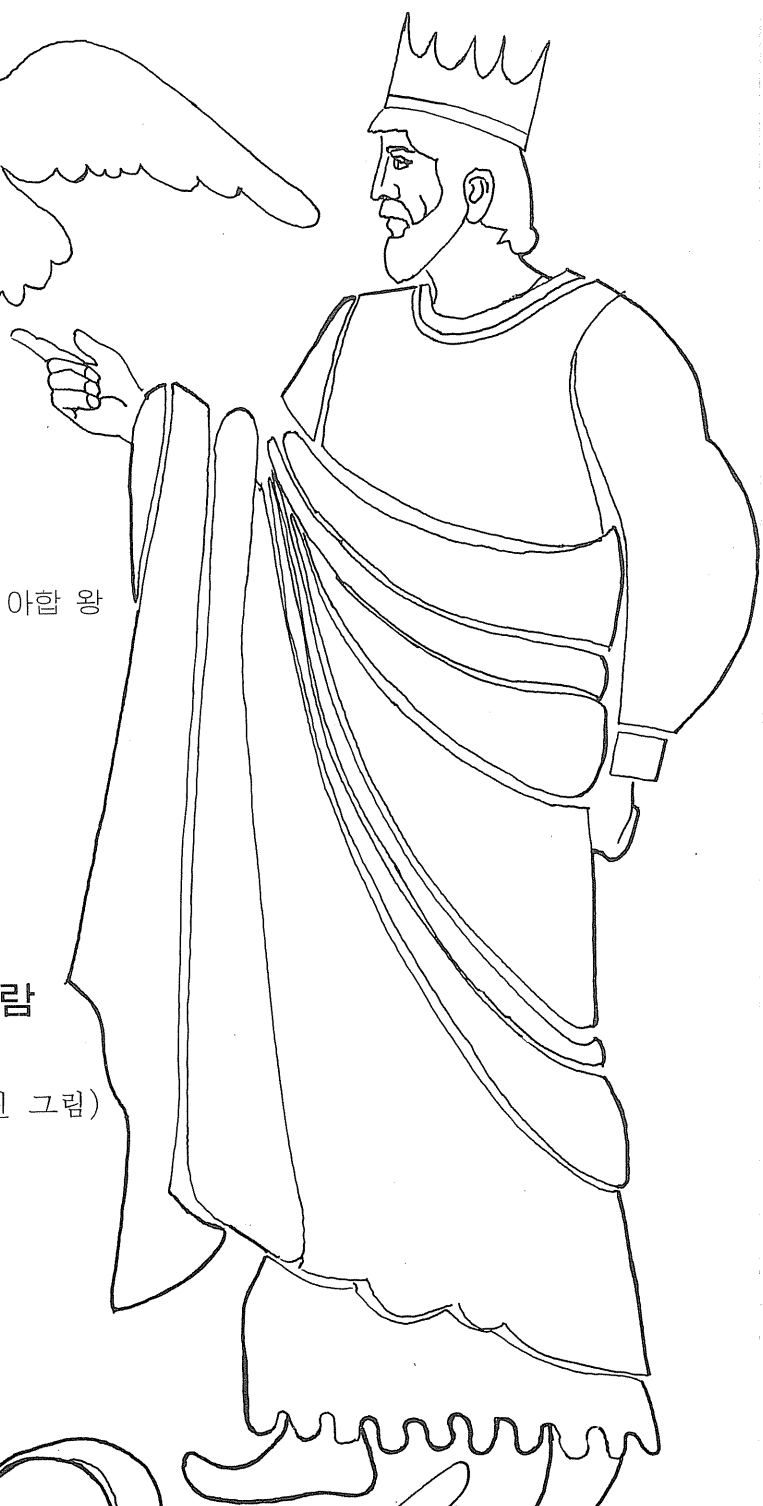
아합 왕

한글
1973년 9월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

(용판 이야기용 오린 그림)

예언자 엘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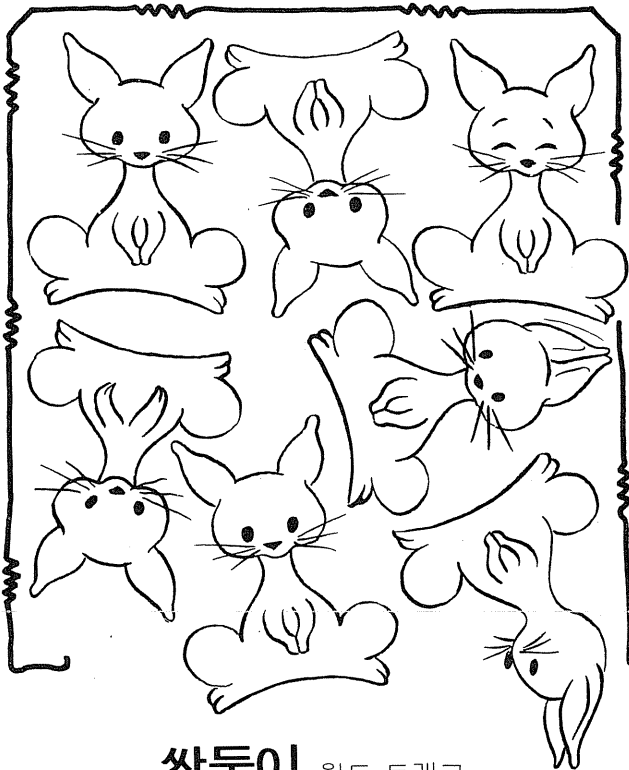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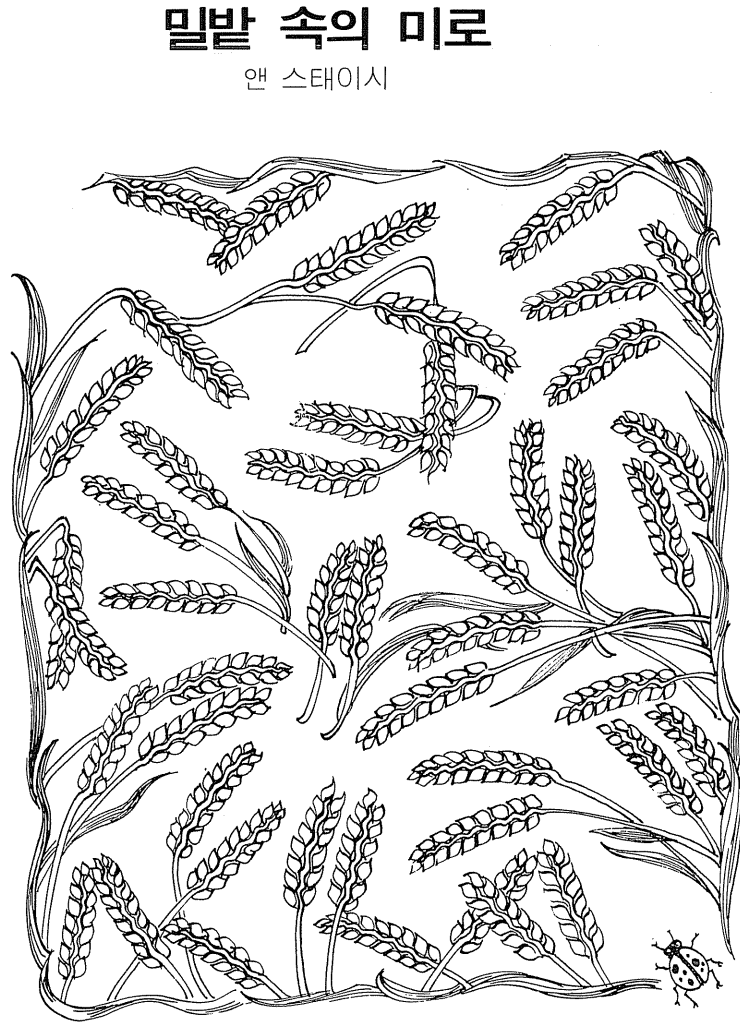


시냇가

까마귀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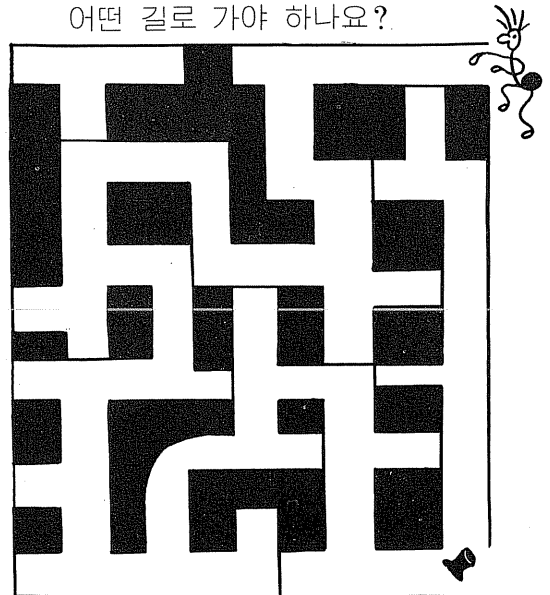


쌍둥이 월트 트래그

모양이 똑같은 토끼를 찾아서 색칠하십시오

잃어버린 모자 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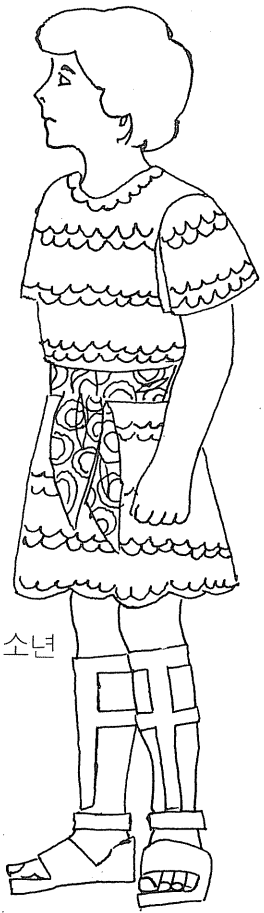
개미가 선을 넘지 않고
모자를 찾아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나뭇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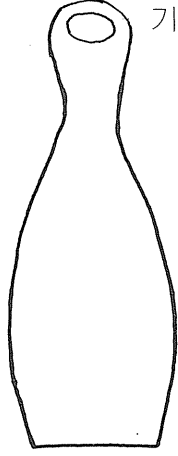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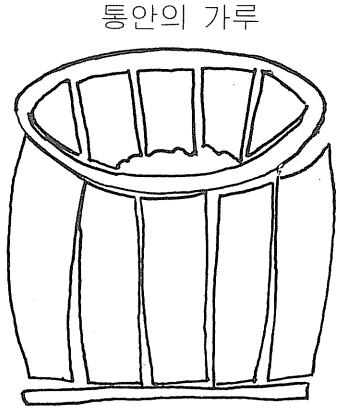
소년

엘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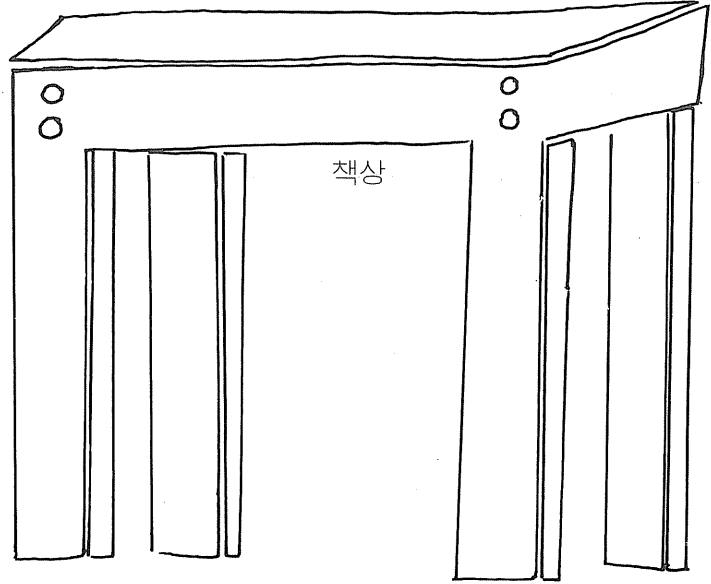
(융판 이야기용 오린그림)
성도의 벗 20페이지
유의 사항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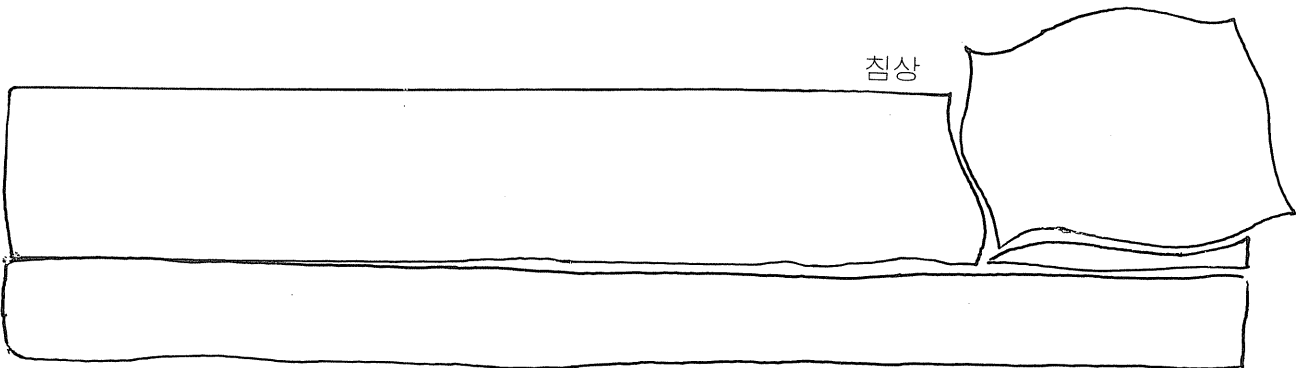
기름



통안의 가루



책상



침상

숨은 그림 찾기

쥬디 카페너

얇은 양 여섯 마리와 목자의 지팡이 하나가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1973년 9월호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권고

신권의 능력을 활용함

수년 전 나는 신권의 위대성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1935년 4월 20일 대관장단이 나를 대관장단 사무실로 부른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는 솔트레이크시 행정관이며 스테이크 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복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계획은 별로 많지 않았고 교회의 재정은 저조하여 교회의 재정 문제에 관하여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도 7,300명 중 4,800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취할 길은 단 한 길뿐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계시로 주어진 주님의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약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관장단이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나를 부른 것은 나의 보잘것 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방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관장단과 함께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관장단은 나에게 시 행정관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으며 나를 스테이크 부장의 직책에서도 해임시켜 오로지 교회의 복지 운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동을 이끌도록 하여 정부 지원의 구제를 직접적인 구제로 전환시키고 교회 자체 내에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위치를 올려 놓도록 전념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차를 몰고(봄이 시작할 무렵이었음) 그 당시에는 로타리 공원이라고 불리웠던 시티 크리크 캐논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내 생애에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한창 시기인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나의 생활 경험은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다호주의 조그만 농촌에서 태어났으며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율타리 밖으로 거의 나가 보지 못하

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 온 세계의 모든 회원과 유대를 가져야 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나의 제한된 이해력으로써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대관장단이 내게 지명한 바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직을 세워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을 성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이 백성의 요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이외에는 없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권의 권능을 적용시킴으로써 복지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난관을 해결하면서 날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마침내는 그 당시에 그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신권의 능력을 이제는 모범으로 기념비처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권의 능력을 깊이 깨달은 나는 오늘 저녁 생각나는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이후, 때가 찬 절정의 시기에 구세주께서 강림하셨던 시기에

“이 백성의 요구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이외에는 없느니라”

서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적용되는 두가지의 성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사도행전 20: 28-30)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갈라디아서 1: 6-12)

이 두가지 경고의 말씀은 비단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중에도 흉악한 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원임을 가장 하나,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간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진」이란, 신앙심이 약한 회원을 때어내려고 옳고 바른 것을 왜곡시키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복음을 전해 준 자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서 떠나 참된 복음 교리를 해치는 사악하고 간악한 무리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저주를 받았음은 그러한 무리들의 몇 가지 사건에서 증명됩니다. 또한 이들은 사탄이 태초로부터 사용하였던 온갖 간사한 말로 속기 잘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악마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를 몇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단 소문이 시작되면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점점 가공적이 되어 결국에는 부지불식간에 그 소문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노변의 모임이나, 분반에서, 상호부조회에서, 또는 신권 정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영적인 교화나 유익한 것을 다루어야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구세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열지파에 관한 축복사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축복사의 축복이란 그것을 받은 개인에게 한한 성스러운 문서이며 결코 출판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받은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낭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이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낭설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가 없이 소문을 믿어버리는 것을 즐겨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하는 것은 소문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어리석은 소문을 절대로 퍼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자신을 지배자로 여기지 않게 할것ियो, 다만 재판 하는자 곧 권고하는 자나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나오는 훈계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할지이다.

(교성 58:20)

1913년 8월 대관장단에서는 오늘날에도 생각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달된 사항 중 몇 가지만 여기에 들어 전하려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역원 및 회원에게 :

“하이람 페이지(교성 29년)의 시대로부터 사람을 속이려는 악마는 기회만 있으면 교회의 회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는 때로는 범범으로 말미암아 수령 사기자, 즉 악마의 먹이가 쉽게 되어버리는 남녀에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교회의 법칙과 의식을 철저히 고수한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거짓된 악마에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도 가장 골수가 되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시현이나 꿈이나 망언이나 예언이나 영감이나 기이한 은사가 우리 교회의 예언과 부합되지 않거나 교회 당국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말일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지시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를 통하여 계시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깊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임직 안수를 받은 관할 조직의 회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성신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불일치되는 영감은 권위가 있거나 믿을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세속적인 면에서도 성도들은 자신에 관계되는 지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교회의 성약, 교리, 교훈,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 진리 또는 상식에 위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시현 또는 꿈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특히 그것이 교회 당국의 지론과 위배되는 것으로 교회의 다른 회원들을 교란시키며 유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질서의 집’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은사나 시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대회에서 온 교회의 찬성 거수 지지를 받은 성스러운 신권의 질서와 권능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상고해 볼 때 수많은 협잡꾼 또는 광신도들이 그들의 시현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려 든 예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실의와 재난과 슬픔만을 갖고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손실을

갖고 온 것은 물론, 심지어는 재산의 지경에 까지 물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듭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말할시키고 여기 저기서 일어나 “기이한” 시현을 보았다고 외치며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로부터 왜곡된 길로 사람들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선풍을 일으키는 이야기, 꿈, 시현, 과거나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측되는 낭설등을 단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일기에서 추측하여 그것의 출처를 합당한 교회 당국의 기록과 맞추어 증명해 보지도 않고 쉽게 회원들이 믿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만과 헛된 소문이 분분한 난세에서 안전하게 인도되고 싶다면, 성도들은 지도자를 순종하여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하여서 간교한 꾀변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의 말과 간악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는 영리한 조종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권의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42편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여러분께 이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성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누가 자기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권능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 의하여 정식으로 성임되어 권능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인정하는 권능자로부터 성임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아니오 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기만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이끌려는 기만자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또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성도 중에서 양떼의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어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교회 회원을 유인하려 하며, 몇 가지 당국과의 정치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수입에 부파를 거부하는 등, 마음대로 국법을 어기려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자신의 당국의 통치를 제지하는 행동이 결국은 체포와 구금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당국을 무시하고 자신이 민간을 통치하려하

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극장가에서 상영되는 도색 영화를 항의하고 전쟁에서의 폭탄 투하를 반대하여 법이 정하는 벌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교회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위 도색 문학이라고 일컫는 추잡하고 선정적인 자료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을 강력히 옹호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토록 급진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답이 있으니 이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자신을 지배자로 여기지 않게 할 것이요, 다만 재판하는 자 곧 권고하는 자나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나오는 훈계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할지이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리라.”(교리와 성약 58 : 20-22)

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인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 간음 죄를 의미하며 이는 결혼 후의 불법적인 간

음 뿐 아니라 결혼 전의 성교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의 바빌론에서 그 맹위를 떨치며 번져가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인정하려는 기세조차 보이나 우리 교회 회원은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되는 동성애까지도 포함합니다.

말일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됩니다. 순간적인 쾌락만을 조장하는 유혹은 그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요하든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멀리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인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여 주신 주님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자비를 베풀어 주님의 공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인간을 덜치려는 재화를 예견하는 허무맹랑한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인간을 압도하려는 공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여 준 성서 이외에 그와 같은 미래를 예언하

는 간행물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한 서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의 지침으로서 만드시 의존해야 할 예언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십시오. 특히 값진 진주에 실린 영감역을 읽으십시오. (요셉 스미스 일서)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의 예표를 증명하여 주신 교리와 성약 45편을 읽으십시오.

다음에는 교리와 성약 101편과 133편으로 넘겨 점차로 일어날 일과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리와 성약 38편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릴 때 주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읽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믿을만 하지 못한 정보나 의문을 자아내는 동기를 끌어내는 주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그와 같은 저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저서에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네 허리띠를 동여매고 준비하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정결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 외에는 깨끗한 자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는 썩었음이라 흑암의 권세가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어 모든 천군 앞에서 땅을 뒤덮느니라.

“이로써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영원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교리와 성약 38 : 9-12)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신권회에서 여러분께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형제님들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이미 인용하신 바와 같이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훈계를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말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가 안되면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지금 현재의 책임에 대하여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의 대관장이 되리라고는 나 자신도 결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던 소년이었을 때 나는 때때로 형제님들이 교

회의 “기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그 말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큰 기둥을 말하는 것이라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대관장은 누가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예측하는 것은 경마에서 내기 하는 것과 같은 도박이며 그 이유는 단지 주님만이 시간표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찰스 에이 칼리스 장로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토론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조지 앨버트 스미스 형제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교회 대관장님이 되실 분이니까요.”

그때 칼리스 형제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제 생애에 세 번 후임 교회 대관장을 선출하였는데 그 세 분이 모두 대관장단에 오르시기 전에 서거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며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일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브리검 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절대적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증지부를 찍지 못하고 의문 부호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인 옹호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나, 오늘날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교회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을 짝아 내리고 신앙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교회의 대관장이라는 지위에서 폐하려는 한 사람이 브리감 영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을 그들의 무리로 끌어 들이려던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 브리감 영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성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제이콥 범프라는 권투 선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영 대관장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영 대관장님은 그의 위협을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신과 같은 사람과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성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관리하여야 하는가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재의 임무를 행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경험과 지도와 시험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을 또 다른 대관장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다른 대관장의 일을 물려 받지 않습니다. 각 대관장은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형제님 한 분과 함께 엔사인 스테이크 부장단을 재조직했을 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한 와드의 감독을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으나 일년이 끝날 때까지 감독이 된 제일 보좌와 함께 그대로 감독으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지지를 받은 후 육주가 되자 스테이크 부장이 갑자기 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연속적인 편지 공세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육주만에 데려가실 사람을 어떻게 영감으로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나에게 말씀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몇명은 주님께서 육주만에 데려가실 사람을 왜 임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전하려 애쓰는 나에게 단에 앉아 계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십시

오. 형제님이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어떤 직책에 부름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날 죽었다 하여도 그 직책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지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역대 대관장님, 역대 사도님, 모든 감독, 스테이크 부장등 관리직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부름을 받았던 직책을 지니고 떠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관장이 다른 사람의 직책을 물려 받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대관장님은 자신의 직책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대관장이 다른 대관장보다 위대하다느니 못하다느니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관장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나는 와드의 주일 학교 분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교사는 축복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교사는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자주 기록하는데 그 축복은 “조건부” 축복임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축복을 줄 때마다 항상 “그대가 이렇게 하지 않을진대” 혹은 “이렇게 하기를 그칠진대”라는 단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조건부’ 축복을 내리시

“복음이 사실임을 아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사로서의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을 펴고 교회의 수많은 형제에게 주어졌던 ‘조건부’ 축복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토마스 비 마쉬, 말틴 해리스, 휘트머의 형제들, 윌리엄 이 맥레린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결길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길로 떨어졌고 몇 사람은 교회의 회원직에서 까지도 파문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날 나는 선교사 그룹과 함께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매 한 분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는 지혜의 말씀의 약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약속이 절름발이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절름발이가 달려도 피곤치도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음

니다. “자매님은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지부를 찍지 못하고 의문부호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대답이나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설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모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부가 아니라 중지부를 찍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베트남에 간 후에 말씀하신 이야기는 내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에서 군복무중 교회에 입교하였다가 극동아시아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힝클리 형제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쫓겨 나겠지요. 집안에서도 따


돌림을 받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군대직에서도 쫓겨날 것이 분명하죠.”

그 말을 들은 힝클리 장로는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 크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힝클리 장로를 쳐다보며, “복음은 참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힝클리 장로에게는 영혼을 구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형제님, 진정코 이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면—또한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그 외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사실임을 아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늘 자신에게 말한다면 환란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강한 신앙을 주님께서서는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엄숙하게 간증하노니 이 복음은 참되고 주님께서 그의 천국에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교회에 마지막 계시를 주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매일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계시를 여러분을 보고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말씀과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신권과 대관장단

신권 조직과 대관장단의 계승에 관한 말씀

신 권이란 우리가 맡은 직분에
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
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
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
이 그 신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
과 성약을 맺게 되는데 오늘 저녁
에 저는 이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
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
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
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 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 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 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 들이는 자는 나
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
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 들
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
여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
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
와 성약을 받아 들이나니, 아버지
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
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 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
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
와 성약 84 : 33 - 41)

그 성약이 지켜지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는 이를 깨뜨리시지 않으며, 우리
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신권의 반차
혹은 신권 하에 이루어지는 몇 가
지 일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이겠으
나 특히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분
들께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나는 교회의 대
관장이 세상을 떠난 후 어떻게 새
로운 대관장이 선택되고 성임되어
대관장단이 조직되며,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신권 정원회의 성
회에서 그리고 어제처럼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며, 어떻게 전 세계의 회원들로
부터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 지지
를 받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권의 권능과 의무
와 책임에 관해서도 몇 말씀드리
겠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대
관장단은 해체되고, 그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하게 되며,
제시에 따라 이 정원회가 대관장
단의 임책을 맡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성 벨기세맥 신권을 소유
하고 있으며 교리와 성약 (교성107
: 23 - 24 참조)에 의하면 권능에
있어서 대관장단 다음 가는 정원
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대관장단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회 회장은
최고의 집행 역원이 되며 십이사
도들은 대관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있게 됩니
다.

예언자 요셉이 교회의 대관장으
로 있는 동안 주님께서서는 그를 통
해 대관장단과 동일한 권능의 모
든 신권의 열쇠를 십이사도 정원
회에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셉이 죽은 후에도 브리
감 영을 정원회 회장으로 하는 십
이사도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수년간 교회를 관장했습니다. 마
침내 그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브리감 영을 대관장으로 하고 히
버 씨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보
좌로 하는 대관장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지 스물 네 시간만에 기능을 발휘했어야 했습니다.

영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자 선택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존 테일러가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를 대관장으로 조지 큐 캐논과 조셉 에프 스미스를 보좌로 하는 대관장단은 곧 조직되었습니다.

테일러 대관장이 돌아 가지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새로운 대관장단을 조직하기까지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것이 그의 의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는 십이사도와 함께 대관장단을 조직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지체하게 되는 일에 관해서 그의 동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엄숙하게 권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차후로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 대관장단이 해체되면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교회의役員들은 지체 없이 대관장단을 재조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으며, 이러한 절차는 그후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72년 7월 7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리 대관장은 새로운 교회의 대관장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엄숙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십이사도 전원이 서열이 낮은 순으로 호명되어 우리 앞에 닥친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블 회장님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말씀을 맺으면서 해롤드 비리 회장을 대관장으로 지명하였으며, 이 제안은 즉시 지지를 받았고 만장일치로 십이사도 정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리 대



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명과 지지에 답하면서 이 거룩한 부름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는 대관장단의 제1보좌로 엔 엘돈 태너를 제2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를 지명하여 십이사도에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서열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명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김블 회장은 십이사도들과 함께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또한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사장으로 성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리 대관장이 태너 부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을 그의 보좌로, 김블 사도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임하였습니다.

이해에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의 대통령이나 기타 정부관리를 뽑는 것과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방법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세 분과 깊이 사귀고 그들을 받들고 일하며 그들을 지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큰 특권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끊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들을 위해 훌륭한 태도로 봉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그와 리 대관장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과 총관리 역원, 교회 회원 모두에게 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모든 인류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러한 사랑을 항상 나타내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리 대관장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와 교회의 대관장으로 선택되었고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스테이크에서의 책임을 주시고 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근 30년간을 이 거룩한 부름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리 대관장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헌신적인 자세와 능력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에 교회를 관장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는 성회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관찰하신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신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복음과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택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이며 그의 종들이 이룬 모든 일에 대한 영예와 영광은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 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업이라면 실패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업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향하는 그의 교회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70년 6월, 26페이지)

그런 다음 그분은 그의 제1보좌이며 지금은 대관장이신 리 대관장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님은 의와 진리의 기둥이시며, 위대한 영적인 힘과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신 진정한 선견자이며 교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같은 책, 21페이지)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제2보좌인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 이의 음성 곧 주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요셉 스미스에게 나는 왕국의 열쇠를 주었나니, 이 열쇠는 대신권의 대관장단에 항상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나는 저를 승인하여 축복하리라. 또 내가 네게 임명한 직책에 머물러 있어 조언하는 일과 조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또는 회중 앞에서나 은밀한 중에서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과 산 자의 나라에서와 네 형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충실하면 나 또한 너를 축복하리라”(교성 81 : 1-3)

이 말씀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관장하도록 예언자 요셉을 부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는...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리우리니,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

“그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 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리니, 저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준 저의 말을 믿게 되리라. 보혜사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상한 심령의 죄를 사하려고 죄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나타내셨느니라”(교성 21:1, 4-7, 9)

집사, 교사, 제사, 장로, 칠십인, 대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의 대관장의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역원은 그의 지시를 받으며,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복음 교리, 174 페이지)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은 벨기세텍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교회의 대관장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일이나 직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은 대관장에게 속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이르노니, 대신권의 직분을 관

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괄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교성 107:91-92)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결코 낙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권을 최대로 선용하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성실해야 하며 매사에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젊은 신권 소유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며 세상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명을 받고 나서 가진 최초의 기자 회견에서 오늘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세에 특

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자리나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올자 모르는 부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금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가 그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성실하였고, 온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금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물론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준비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그와 그의 아들모로 나이가 행한 위대하고 중대한 일에 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을 입증했기 때문이며 스스로 합당함을 증거해 주님께 받아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의와 진리 지키기에”라는 노래를 듣고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의와 진리 지키기에 지체하지 말며 이 세상에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

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소년과 위대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판장이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14세의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교회의 대판장과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어느 교회가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임된 것과 같이 그도 예임되었으며,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합당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리 대판장님도 젊었을 때는 교회의 대판장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맡은 직분에 성실하게 임한 그의 자세가 그러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장로나 칠십이나 대제사 구룹의 장이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로서 중요한 것과 같이 집사 정원회나 교사 정원회 회장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과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할 것을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성 107 : 99-100)

“우리 어찌 보수 생각하라 나가서 싸우자”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연령에 관계 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악을 물리치며,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남에게 진실하게 대해서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우리의 모범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 5 : 16 참조)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중단 없이 전진하여 가고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왕국이 성장해서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권을 소유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죄를 짓고는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나 성실한 자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젊은 형제들은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예임되었으며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지혜의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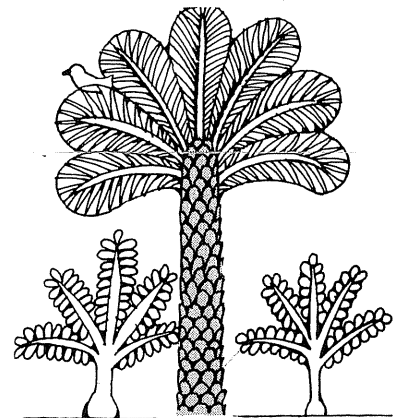
모든 계명을 말함)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다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은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교성 89 : 18-21)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의 신권을 소유하게 된 특권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표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대로 살아 가도록 용기와 힘을 간구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㉞



또 다른 예언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옛날처럼 현재에도 그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이날을 위해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의 말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 주는 영감받은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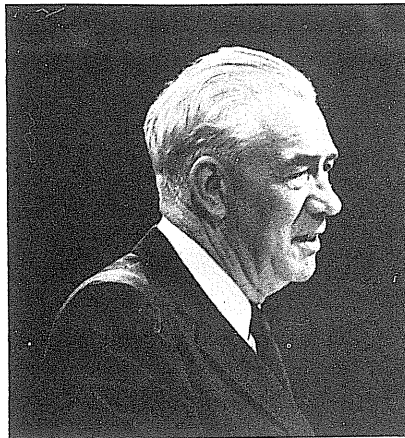
이 새로운 예언자의 성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는 이러한 성스러운 사실을 세상에 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자녀로 인정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대에도 백성들이 성실하게 살았을 때 거룩한 사명을 맡은 예언자가 계속 세움을 입고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많은 예언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부름을 받아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일은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후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지상에 있을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때 주님께서서는 오직 예언자를 통해서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흔히 있는 대화를 가정한 것이므로 매우 흥미가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주님은 대화의 하나님이시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예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암흑 속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며 무지한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은 개화된 백성과의 대화에 의존합니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뜻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대화나 계시를 통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지식을 전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것은 불변의 원칙이니 즉 그는 언제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경전은 수 세기 동안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지식을 제한 없이 주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계시가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으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사야 59:1-2)

인간은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더디며, 비록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가 따르는 절차입니다. 그는 이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시고 그의 방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대화의 결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단절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시대부터 침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변자로 일할 영감받은 사람을 뽑아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에스겔, 모세, 스가랴와 같은 이름을 자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위대한 문학적이거나 있으며,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를 실은 구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떠했습

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기독교 교회에 예언자를 두셔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지속하였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세주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와 예언자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엡 2:20 참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예언자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십이사도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신약 성서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실라와 바나바는 그 당시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시므온과 루기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체포를 예언한 마나엔과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행 11, 13, 21 참조)

에베소인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 교회에 예언자가 있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는 말로 분명해집니다.

구세주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처럼 온전해지라(마 5:48 참조)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러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와 예언자도 두셨습니다.

이 영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단합시키고 그들이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엡 4:14)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 기록된 바대로 그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대화의 방법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언자의 대화가 초기 기독교 교회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되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예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수 세기 동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계시자 요한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원 후 110년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계에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대화를 받지 않고 표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파에서는 예언자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예언자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시고 그의 방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에 쓰인 성경이 필요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 인도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백성들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 다. 구세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주위 사람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습 같이 내가 배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16장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경전은 구세주의 재림 직전인 말일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바다가 육지를 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유행하고, 무서운 전쟁이 계속되는 등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일의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표적은 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이며 이것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계 14 : 6-7 참조)에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이란 광범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종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경전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행 3 : 21 참조)

그렇다면 그것은 예언과 계시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예언자들이 부름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경전은 말일에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종인 예언자를 통해 그의 계시를 주신다고 하였고, 수 세기 동안 예언자들이 없었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 위해 마련된 계시를 전할 새로운 예언자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언대로 되어 왔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일의 최초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순수한 복음을 회

복하셨으며, 1830년에 지상에 교회를 재조직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대의 예언자가 있어 왔으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다음으로 브리감 영이 부름을 받았으며 그 뒤로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렙,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와 현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들은 선견자였고 계시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리 대관장님을 이 시대의 영감받은 지도자로 정식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소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선대의 예언자들이 지녔던 성신권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모든 열쇠와 권능이 리 대관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업은 복천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읍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귀가 먹지 않았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는 병어리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 있는 그의 예언자에게 유창하게 말씀 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에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있읍니다. 그리스도는 꼭 다시 오십니다. 그의 교회는 그의 재림을 맞기 위해 회복되었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상에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실라, 바나바, 바울과 같은 예언자를 갖게 되었읍니다.

또 다시 참된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었읍니다.

또 다시 현대의 종을 통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우리를 인도하는 이 새로운 예언자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구원을 안겨다 주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일에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경전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누구이며 누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산 위에 선

누구의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지 자문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경의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아빈아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하던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아니냐?

“저들은 평화를 공포하는 자요, 선한 일의 선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공포하는 자요, 시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자라.

“산 위에 오른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직도 평화를 공포하고 있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오를 때 얼마나 아름다운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화평을 이룩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주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고!” (모사이야서 15:13-18)

아빈아다이는 이상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태초부터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종이며 평강의 복음을 가르치

기 때문에, 보십시오, 산 위에 오른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방법대로 지상에서 구원의 사업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옛 선지 걸었던 그길 우리도 알았네 이 지식 회복하려고 예언자 주셨네.”

우리는 오늘날 하늘과 땅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것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읍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귀가 먹지 않았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는 병어리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 있는 그의 예언자에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에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에게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